

근대 불교잡지의 번역담론*

— 『불교』를 중심으로

김종진

동국대학교

kimjj37@hanmail.net

I. 머리말

II. 근대 불교 번역론의 연구 현황

III. 불교잡지에 전개된 번역담론

IV. 번역담론의 비교와 시대성

V. 맺음말

요약문

근대불교잡지 특히 『불교』(1924.7-1933.7)에는 해외의 불교연구, 과학지식, 문학 작품 등 경전의 번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번역이 혼재되어 있다. 또 근대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그 시대에 불경 번역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모색한 불교 지성의 논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은 그동안 선행연구자들이 근대불교 지성의 번역에 대한 인식과 당대인의 실천을 소극적으로 파악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요한다.

이 시기 전개된 번역담론으로는 권상로의 「조선글화엄경을 보고」(『불교』43호, 1928.1), 백성욱의 「역경의 필요는?」(『불교』58호, 1929.4), 김법린의 「민중본위적 불교운동의 제창」(『일광』2호, 1929.9), 「이대문제」(『일광』3호, 1931.3)에 대한 김법린과 한용운의 답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박한영의 「설창한화」(『일광』3호, 1931.3), 한용운의 「조선불교의 개혁안」(『불교』88호, 1931.10)과 「역경의 급무」(『(신)불교』3집, 1937.5)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7259)

등이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근대불교 번역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를 검토하고 불교잡지 번역담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장에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1920-30년대 불교잡지의 번역 담론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조선글화엄경』(1927, 1928) 간행 이후 박한영, 권상로, 한용운, 백성옥, 김법린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식들이 형식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번역론을 전개했으며, 문화와 문학적 번역의 가치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했음을 확인하였다. 『불교』를 비롯한 1920-30년대 불교잡지의 번역담론은 백용성의 『조선글화엄경』 출간으로 촉발되었고 그 논리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번역, 근대불교, 번역론, 번역담론, 백용성, 박한영, 권상로, 한용운, 백성옥, 김법린

I. 머리말

불교의 역사가 번역의 역사라는 명제는 동아시아 불교의 전래와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다. 비단 중세만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불교 형성에도 번역의 의의는 본질적으로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장경의 전면적 번역에 초점을 맞추는 한, 그리고 경론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는 한 한국 근대불교와 번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시야를 넓혀 보면 근대불교잡지에 수록된 모든 글감 하나하나가 번역의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의 번역, 번역론 연구는 연구 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복합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근대불교와 번역의 관계를 살피는 일은 전통적인 경전의 번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불교개혁의 맥락에서만 언급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근대 불교잡지에는 다양한 번역론이 개진되어 있고 수록된 번역물의 양태 또한 다양하다. 1920-30년대 불교잡지로서 대표성을 띠는 『불교』만

하더라도 경론 외에 문학이나 논문의 번역물도 있다. 전통적인 한문 불경을 전부 혹은 일부 번역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본, 중국의 불교 잡지에서 발췌한 시사적인, 학술적인 번역물도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가 원어인 논문도 일부 번역되어 있다. 범어 경전을 직접 번역한 것도 있고, 일본어나 중국어 번역을 중역한 것도 있다. 인도시인 타고르의 시와 수필, 독일의 문호 헤르만헤세의 『싯다르타』도 번역되어 있고, 일본과 중국의 근대시, 영시 등도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번역물의 실상은 불경의 번역, 대장경의 번역에 주목한 기존의 논의와 다른 시각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근대불교와 번역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 시기 불교계 공론의 장인 불교잡지에 보이는 번역담론 및 학술, 문학 번역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근대불교와 번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근대 불교지성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반영된 불교잡지의 면밀한 독서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불교와 번역의 관계를 탐구하는 필자의 첫 작업으로 1920-30년대 불교잡지에 드러난 번역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은 예비적 고찰로 불교와 번역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경향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3장은 본론으로 번역 담론을 조사하며, 4장은 이들 담론에 나타난 특징을 비교하고 시대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논의의 주요 대상은 『불교(佛敎)』(불교사, 1924.7-1933.7)이며, 『일광(一光)』(중앙불전교우회, 1928.12~1940.1)과 『(신)불교』(경남삼보산 중무협회, 1937.3~1944.12) 등 동시대 잡지도 필요에 따라 언급될 것이다.

II. 근대 불교 번역론의 연구 현황

근래에 근대불교와 번역의 관계는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고 성과도 풍부하다. 그 성과를 대별하면 첫째, 백용성의 역경 활동과 『조선글화엄경』의 의의를 밝힌 연구¹⁾, 둘째, 일제시대 불교서적 출판의 역사를 고찰하며 번역서

를 포함한 연구²⁾, 셋째, 근대불교개혁론에 언급된 불경의 번역담론을 고찰한 연구³⁾, 넷째, 근대불교잡지의 번역 양상에 주목한 연구⁴⁾, 다섯째, 개별 경론의 번역 연구⁵⁾ 등이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근대 불교와 번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시대적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존 관념의 재고와 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조선 세조대에 간경도감을 세워 불경을 언해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불교의 한글화는 거의 없었으며 그 효과 또한 미미했다.
- ② 근대에 시도된 불경의 한글화는 근대의 산물이다. 이는 기독교 성서 번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것이다.
- ③ 백용성의 번역은 당시의 유일하며 제대로 된 성과물이나, 당시 불교계는 백용성의 불경 번역에 적대적이었으며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
- ④ 불교개혁론에 보이는 불교지성의 번역에 대한 인식은 이영재의 「조선 불교혁신론」(조선일보, 1922)과 한용운의 「조선불교개혁안」(『불교』88호, 1931)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약하게 드러난다.

-
- 1)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5집(대각사상연구원, 2002);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역경 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5집(대각사상연구원, 2002); 한보광, 「백용성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대각사상』18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신규탁, 「한역 불전의 한글 번역에 나타난 경향성 고찰-간경도감 백용성 이운허 김월운 스님들의 경우를 중심으로」(『동아시아불교문화학』6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 2) 김광식, 「일제하의 불교출판」, 『대각사상』9집(대각사상연구원, 2006).
 - 3) 김종인, 「20세기 초 한국불교개혁론에서 불경의 한글 번역에 대한 인식」, 『종교연구』55집(한국종교학회, 2009); 김종인, 「20세기 초 한국불교개혁론에서 불경의 한글 번역에 대한 인식」, 『고전, 고전번역, 문화번역』(미다스북스, 2010); 김종인·허우성, 「불경의 한글번역과 한국사회의 근대성」, 『동아시아불교문화학』6집(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윤종갑, 「동아시아의 근대불교와 불경의 번역과 출판」, 『동아시아불교문화학』28집(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
 - 4) 사토 아츠시, 「근대 한국불교잡지에서의 해외 논문 번역-1910년대 초를 중심으로」, 『동국사학』60집(동국사학회, 2016); 조명재, 「1910년대 식민지조선의 불교 근대화와 잡지 미디어」, 『종교문화비평』30집(종교문화비평학회, 2016).
 - 5) 이 시기 개별 번역서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주제와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 김상영, 「만해와 허영호의 불교성전류 편찬 간행과 그 의의」, 『만해학보』14·15합집(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15); 송현주, 「불교대전과 불교성전 비교」, 『불교연구』43집(한국불교연구원, 2015); 김호귀, 「용성의 불전번역과 그 의의-금강경과 용성선사어록을 중심으로」, 『전자불전』17집(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15); 임형석, 「박한영 인학절본 번역과 사상적 문맥」(『동아시아불교문화학』15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3) 등에서 개별 번역론이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①은 15·6세기에 이루어진 불경 언해와 근대 백용성의 번역 사이에 긴 공백기를 상징하는 시각이다. 세조대에 간경도감에서 판각한 언해불서가 17·18세기로 이어지며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중간되어 유통되는 현실적인 과정과 흐름은 배제되어 있다. 시대별 지역별로 새로운 서문을 붙이거나, 축소, 확장, 변경 등 인쇄 과정에 보이는 전달자의 역할과 함께 수용자의 인식 또한 소중하다. 언해불서가 지속적으로 인쇄되고 필사되고 유통되는 한 불교의 한글화 노력이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체 대장경의 번역에 국한하지 않고 17·18·19세기와 20세기 초에 산출된 산발적인 한글 번역의 양상을 살펴 합당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②와 ③은 백용성의 『조선글화엄경』 서문에서 확인되기에 일견 강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글화엄경』의 발문에서 역자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를 때 타 종교 인사들이 한글성전을 읽는 것을 보고 불경의 한글 번역에 대해 자각하였고, 이를 실천할 때 불교계 인사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음을 토로하였다.⁶⁾ 백용성 자신이 직접 말한 바와 같이 타 종교의 영향과 자극으로 불교계의 번역이 시작되었고 불교계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⁷⁾

백용성의 언술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조선글화엄경』의 번역에 외래 종교의 영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근대 이전까지 면면히 유지된 조선후기의 번역 양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대의 기점으로 상징하는 또 다른 시기, 즉 1850년대 이후 불교, 천주교, 동학이 서로 경쟁하며 교리를 한글로 전파하는 데 힘을 쏟은 사실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

6) “대각응세이천구백삼십륙년(1919) 삼월일일에 독립선언서 발표의 대표 일인으로 경성서대문 감옥에서 삼년간 철창생활의 신산한맛을 체험하기되었다 각종교 신자로써 동일한 국사범으로 들어온 자의 수효는 물론만치 많았다 각각 자기들의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며 기도 하더라 그때에 내가 열람하여보니 모다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오 한문으로 그져 있는 서적은 별로 없더라 그것을 보고 즉시 통한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이러케 크고큰 원력을 세운 것이 (중략) 이러케 결정하고 세월을 지내다가 신유년 삼월에 출옥하여 모모인과 협의하였으나 한사람도 찬동하는 사람은없고 도리혀 비방하는자가 많었다.(『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서』, 『조선글 화엄경』 열두째권(삼장역회, 1928년 3월 28일), p.43.

7) 김종인·허우성(2010), p.140.

사와 연구를 통해 근대불교번역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④는 불교개혁론에 국한하여 불경의 번역론을 찾아 논의한 결과이다.⁸⁾ 연구 범위를 한정하다보니 불교포교를 위한 도구로서 번역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을 넘어서는 주장은 찾기 어려웠다. 개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번역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논설을 찾는 등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 제기는 불교와 번역의 관계, 근대불교와 번역의 관계를 살펴볼 때 연구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근대 이전의 번역은 제외하고 주로 ③④와 관련하여 1920-30년대 불교잡지에 보이는 번역담론을 조사하고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III. 불교잡지에 전개된 번역 담론⁹⁾

『조선글화엄경』¹⁰⁾은 근대 불교계가 이루어 낸 한글번역 최대의 성과로서, 당시 불교계가 자부할 만한 성과였다. 『불교』에는 이 책 간행 이후의 소식이 휘보, 종보란을 통해 신속하게 기사화되었으며, 광고를 통해 판매의 확산을 시도하였다.¹¹⁾ 이들 하나하나의 기사가 모여 이 시기 불교계의 번역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번역담론은 당시 불교 지성의 논설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

8) 김종인(2009), pp.116-117 ; 김종인·허우성(2010), pp.138-139.

9) 본고에서 언급하는 ‘번역’은 협의의 번역, 즉 고전어로 된 경전의 전체 혹은 일부 내용을 그대로 한글로 옮기는 기본적인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당시 독자들이 전통시대의 불교지식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한 2차 결과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쓴다. 즉, 번안, 해설 및 제2의 창작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10) 삼장역회 간행. 첫 권은 1927.11.5. 열두째 권은 1928.3.28. 번역 기간은 1926.4.17.~1927.10.13. 『조선글화엄경』 첫 권에 “대각능인 이천구백오십삼년 음역사월 십칠일하오이시에 경상도양산군천성산내원 만일선원 조실에서 번역에 착수함”이라 하였고, 마지막 권에는 “세존응세이천구백오십삼년 정묘십월십삼일 오정에 번역을맛침”이라 하였다.

11) 『불교』41호(1927.11)의 사고(社告), 48호(1928.6)의 휘보와 광고, 62호(1929.8)의 종보(宗報), 79호(1931.1)의 사고, 104호(1932.2)의 교계소식과 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기사와 광고는 책 간행 이후의 사회적 여파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 번역담론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과정에서 역경이 포교와 교육에 필요하다는 기존의 단선적 논리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단계로 심화되어 갔다. 박한영, 권상로, 한용운, 백성욱, 김법린 등의 논의가 그러하다. 이들의 논의는 백용성의 『조선글화엄경』 출판을 기점으로 하여 『불교』 『일광』 『(신)불교』 등의 불교잡지에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들 논의는 『조선글화엄경』 간행의 후속 논의로서 의의가 있다.

1. 당위론에서 방법론으로_권상로

권상로(1879-1965)는 『조선글화엄경』 첫 권이 간행된 직후 「조선글화엄경을 보고」라는 장문의 논설을 발표하였다.¹²⁾

이 글에서 권상로는 중국에서 불교의 유통은 번역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였다. 인도와 중국은 언어 문학 지리의 세 가지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체경을 번역할 필요를 절감하고 약 1,300여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한자로 번역하여 세계 대장경 중 가장 풍부하고 완전한 대장경을 이룩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 몽고, 서장, 섬라, 석란 등 불교가 유통되는 곳에서는 그들의 문자로 일체경이 번역되었음을 상기하면서 한글 창제 이후 일체경을 조선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당연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혔다.(p.16) 나아가 백용성의 『조선글화엄경』 역출은 신라, 고려는 물론이고 조선과 근대까지도 이루어 내지 못했던 유사 이래 처음 있는 ‘파천황의 대사업’으로 평가하였다.(p.17) 이어 『화엄경』 번역의 난점을 소개하였고, 한글 번역시 초래되는 폐해를 말하는 한글역경 비판론자의 주장을 논파하였다.(pp.18-19) 결론으로는 불교의 시대적 과제로 불교서적의 출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조선불교 대(對) 조선사회 조선민중에는 온갖 것이 모다 긴절치 아니한

12) 지일생(之一生), 『불교』 제43호(불교사, 1928.1), pp.16-20.

것이 업지마는 시대에 순용하고 민중에 보급케 하라면 오즉 서적의 일문(一門)을 제하고는 하등의 묘술이 업는 것은 교지(巧智)를 기대리지 안코 알사바이라 혹은 순한문(純漢文) 그대로 혹은 선한문교용(鮮漢文交用)으로 혹은 순조선문(純朝鮮文)으로 혹은 해석으로 혹은 강의로 혹은 통속으로 혹은 의역으로 인어인(人與人)이 차(此)에 주심집력하며 일부일(日復日)로 차(此)가 운흥천용(雲興泉湧)하야 전 조선민족으로 하야곰 각각 자기의 근기에 따라 취독(就讀)하여서 일부일부(一夫一婦)라도 불교의 경전을 보지 못한 자가 업고 알지못하는 자가 업게 되야사 어시호(於是乎)에 조선불교는 다시 불교다와질스것시오 조선불교도의 신앙이 다시 옹고(隆高)하리라. 우자(愚者)의 찬미를 받느니보다 지자(智者)의 가책을 받는 것이 나흐리라.(p.20) (인용문은 원문의 형태를 살리되 한자어는 한글로 변환하고 일부는 병기함. 이하 동일. 필자)

인용문에서 권상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대중들에게 불교를 보급하려면 오직 서적의 출간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적의 일문(一門)’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표기 방식과 전달 방식의 두 측면을 언급하였다.

먼저 ‘순한문, 선한문(鮮漢文) 교용(交用), 순조선문’이라는 출판의 표기 방식을 나열하였다. 이 가운데 ‘한문과 한글을 함께 제시하는’ ‘선한문 교용’과 한글 전용인 ‘순조선문’ 쓰기는 번역의 표기 방식 즉, 번역의 문체와 관련이 있다. ‘선한문 교용’은 한문 구에 토를 다는 현토식 번역도 포함된다.

순한글 번역서인 『조선글화엄경』의 성과와 의의를 강조하는 글임에도 권상로는 수용자의 수준에 따른 순한문, 국한문 교용, 순조선문의 출판(번역)을 대등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백용성이 구현했던 번역의 다양한 문체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조선글화엄경』의 발문에 해당하는 「번역의 연기」에는 백용성이 시도한 다양한 형태의 번역이 소개되어 있다.¹³⁾ 여기에 보이는 ‘선한문’, ‘순조

13) “선한문으로 심조만유론을 저술하고 선한문으로 천노금강경을 번역하고 순조선문으로 금강경을 번역하고 주내었으며 또 금강경을 상세히 번역하고 과목하고 조선글로 주해하고 또 능엄경을 선한문으로 번역하고 순조선문으로 연의하고 또 원각경을 선한문으로 번역하고 순조선문으로

선문'은 번역의 문체를, '연의' '과목' '주해' '초출' 등은 번역의 형식을 언급한 것이다. 『불교』 1호부터 매호 계속된 광고란에 백용성의 '역술(譯述)'로서 '순선문급선한문교역(純鮮文及鮮漢文交譯)'(『선문촬요』 외), '선한문교용(鮮漢文交用)'(『심조만유론』 외), '순선문역(純鮮文譯)'(『팔상록』 『금강경』)의 형태가 소개되어 있다.¹⁴⁾ 이는 순한글, 국한문혼용 등 번역의 문체를 표제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권상로가 제시한 '해석' '강의' '통속' '의역'은 출판과 번역의 양 측면에서 대중화의 다양한 방법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하게 직역하거나 원문을 1:1로 제시하여 퍼내는 기본적인 번역행위를 넘어서 역자의 해석이 가미된 역술과 찬술, 대중의 눈높이와 취향에 따라 재구성하는 번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불교경론의 번역이 사실은 다양한 문체와 형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권상로의 글은 『조선글화엄경』간행에서 촉발된 번역담론으로서, 번역이 불교의 포교에 필요한 것이라는 포교론에서 벗어나 번역의 표기 방식(문체)과 번역의 전달 형식이라는 방법론을 제기한 논설로 평가할 수 있다.

2. 문화 운동론의 개진 백성욱 김법린

백성욱(1897-1981)과 김법린(1899~1964)은 권상로와 약 20년 터울의 후배 세대로서 문화운동과 조선학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번역론을 전개하였다. 앞의 권상로의 글이 발표된 다음 해의 상황이다.

먼저 백성욱은 「역경(譯經)의 필요(必要)는?」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번역론을 전개하였다.¹⁵⁾ 글은 먼저 '근자의 이십여 년 간에 있어서 우리의 진행하는

주해하고 또 팔상록을 저술하고 또 능엄신주경문을 초출해야 전후 누락함이 없이 번역하고 또 선문촬요를 번역하고 또 수심경로를 저술하고 또 대각교원류를 저술하고 또 대각교에 의식을 초출해야 번역”(『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사기』, 열두째 권, p.43).

14) 『불교』 1호의 책 광고. “백용성선사 역술 - 선문촬요(純鮮文及鮮漢文交譯), 원각경(상동), 금강경(상동), 수능엄경(상동) / 심조만유론(鮮漢文交用), 귀원정종(상동) / 팔상록(純鮮文譯), 금강경(상동). 발행소 삼장역회.”

15) 무호산방(無號山房), 『불교』 58호(불교사, 1929.4), pp.19-24.

방향을 본다면 순연한 문화운동이었나니 문화라 하는 것은 의의로 보아서 자아를 인식한 생적운동(生的運動)이다.’(p.19)라는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1910년대 초부터 글을 쓴 당시 1929년까지의 약 20년간의 근대 불교 정립을 위한 전 과정은 그 지향이 일종의 자아를 인식한 살아있는 운동임을 밝히며 이를 ‘문화운동’으로 명명하였고, 그 운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역경사업’을 제시하였다.¹⁶⁾

그는 역사적으로 세조대 이후 역경사업이 대승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불교도의 시대적 사명으로 ‘『한글불교』의 간행’을 제시하였다(p.21). 그리고, ‘불교의 장래’를 위해 ‘모어(母語)로 불교전적을 연구’해야 함에도 한문습득에 이십여 년이 소요되어 지리멸렬해지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대중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불교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국 강원의 약 300명되는 학인의 불전 연구와 직업문제를 위해서도 ‘역경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pp.22-23)

이글은 백용성이 삼장역회에서 진행한 일련의 불경번역을 근래의 성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발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불교포교를 위하여 역경이 필요하다는 전 시기의 논리를 넘어서 번역이 이제는 문화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역경은 교학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고, 이들을 완수한 단계를 ‘역경의 완성’이라 하였다.

결론에서 필자는 이후 전개될 역경의 방식, 번역의 방식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 ① 역경을 실현하자면 문체가 물질에도 상당한 고구를 요할지나 역출하는 방식도 문체가 참으로 중대하나니 예하면 만치도 못하나마 재래의 경전역출식으로는 부족하다. 재래의 경전역출식이라는 것은 한문현토식을 한글로 써노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은 경전을 능통한 이로도 해

16) “불교운동의 방향이라고 말하면 다종다양의 기록을 지적하고서 할지는 아니 못하나 그중에 역경사업가튼 것은 불교수입 후에 업지 못할 자각운동이다.”(p.19)

석하기 불가능하거던 황(況) 통속적으로 연구에 공(供)할 수 업고 또 다
르다면 한문경전을 한문 그대로 두고서 색이여 노음에 불과하다. 이와가
튼 류는 시대가 요구치 아니한다는 것보다 역경이라는 것을 그다지 용이
하게 생각함에서 나온 일종 약점인 동시에 역경의 임(任)에 당한 이들의
무식을 발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가튼 사업에 술선하시여서 선구를
작하시고 후진으게 일할 터를 보이여주신이만큼 감사를 아니올릴수업다.
② 그러나 우리의 요구하는 역경인즉 주위의 사정과 감정과 감화의 정도
를 보는 동시에 타 일면으로는 문학적 방면에 유의하여서 한문을 이해치
못하는 사람을 표준삼아 한글로 역출할 것이라. 그들이 단독히 이해하도
록 역출하여야 될것이요 동시에 현대의 우리는 한문에 사색까지 속박을
당하였는지라 가능한대로 이것을 초월하여서 완전한 구상으로 역출하
지 아니하면 불가하니만큼 역출자의 책임이 중대하고 동시에 지식을 요
구한다.

③ 나는 이에서 이상을 들어서 우리 문화의 소화정도를 논하였고 불교도
의 최대임무의 일(-)을 들어서 감히 불교도 아니 차라리 우리 문화건설
에 노력하고자 하시는 제현의게 고하고저 한다.(p.23) 우리는 이상을 실
현하는 동시에 이것으로부터 신라의 문화 고려의 문화들을 차저서 극적
으로 예술적으로 전설적으로 문학적으로 대중과 공향(共享)한 기회를 확
실이 발현할이라 믿는다. 이것이 불교도로서의 고대문화를 보존하였다
는 증거이요 우리 대중이 반듯이 얻어야만 될 것이다.(p.24)

①은 기존의 선학들이 역출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대목, ②는 우리시대의 역
경이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말한 대목, ③은 번역 이후 우리의 문학적
양식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 대목이다.

먼저 백성옥은 기존의 경전 번역은 ‘한문현토식 표기를 한글로 써 놓은 것
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물론 ‘그나마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에 감사
하지만 역경이라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생각한 데서 나온 일종의 약점이며 역
경의 책임을 맡은 이들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결국은 ‘문학
적 방면에 유의하여서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 한글로

역출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 우리의 '사색이 한문으로 속박을 당해왔으며 가능한대로 이것을 초월하여 완전한 구상으로 역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였다. 또 이만큼 '역출자의 책임이 중대하고 동시에 지식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즉 '우리 문화의 소화' 정도를 심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존의 불교문화를 찾아서 '극적으로 예술적으로 전설적으로 문학적으로' 대중을 위해 구현해 줄 것을 불교도들, 즉 문화건설에 노력하는 제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여기에서 백성옥이 비판한 '재래의 경전역출 방식'은 1910년대 불교잡지에 다수 보이는 현토체의 번역이다. 백용성의 업적 또한 상찬과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순한글로 되어 있지만 당시 대중들의 언어감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울러 비판하고 있다. 백용성의 번역이 가지는 시대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필자가 말하는 '문학적' 방면이란 현재의 우리가 인식하는 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곧 문체를 포함한다. 현실적인 어휘와 언어감각을 가지고 독자에게 다가가는 문체의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텍스트가 창출된 시대와 장소가 다르고 언어감각과 언어관습이 다른 현재의 시점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③에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발굴하여 '극적으로 예술적으로 전설적으로 문학적으로 대중과 함께 누릴 기회를 확실히 발현'해야 한다는 말은 번역의 현재적 활용과 의의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경전과 번역문의 1:1 번역을 넘어서 번역이 문화창조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전설 같은 스토리를 개입시키며 또 문학적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 최종적으로는 불경의 번역이 단순히 불교포교라는 불교 내의 제한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화행위가 아니라, 우리 문화 창조에 동참하는 매우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였다.

17) 번역이 '극적으로 예술적으로 전설적으로 문학적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 장에 소개할 한용운, 박한영의 문학적 번역론과 상통한다.

김법린은 백성옥과 같은 해(1929) 중앙불전교우회지인 『일광』3호에 「민중본위적 불교운동의 제창」을 투고하여 역경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¹⁸⁾

‘산사로부터 도시에로! 승려본위로부터 신자본위로! 등둔적 독선적 불교로부터 사회적 겸제적(兼濟的) 불교에로 진출하자’(p.39)는 서두는 조선불교 갱신운동, 즉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민중본위적 불교운동을 제창한 필자의 상징적 선언문이다. 그는 이 글에서 불교의 가치를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조선의 불교는 ‘과거엔 문화생활의 근간이오 현재엔 민족 역량의 잠재(潛勢)’임에도 현재는 ‘자체적 발전의 부진과 사회적 성가의 몰락’(p.39)을 초래하였고, 최근 30년 동안의 불교가 ‘민중생활과 사회진운에 직접 참여하여 조선의 신문화운동에 어떠한 노력과 공적을 제공치 못한’(p.40)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불교가 조선의 현실 개혁, 조선의 문화 창조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불교지성의 고뇌를 드러낸 것이다.

논자는 이렇듯 조선불교가 조선사회, 조선민중, 조선문화에 기여할 방안으로 신불교운동을 주창하였다. 그 방안은 ①불교청년회의 전위적 활동 ②종래 포교방식의 근본적 개혁 ③불교전문학교의 학과 증설 등이다.(pp.41-42, 53) 이 가운데 포교방식의 개혁 일환으로 불교성전의 번역, 불전의 민중화와 현대화를 제시하였다.

불교와 민중과의 소격(疏隔)은 현재 포교상태가 무엇보다 잘 표시하는 것이니 신진청년포교사의 지도하에 있는 기개소(幾箇所)를 제외하고 각지 불교포교당의 정황은 양으로나 질로나 형언할 수 없이 잔약하다. 신자의 수로 말하면 많아야 육칠십명, 보통 이삼십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오 그 구성분자는 구할 이상 아니 전부가 연로한 부녀자이며, 신앙의 요소로 말하면 잔박한 화복설과 고루한 미신설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 시대에 적의한 통일된 설교의규가 없다. 원래 내용이 심원한 사색을 포장하였으며, 형식이 난해할 한문으로 구성된 현존불교성전을 민중의

18) 철아(鐵啞), 『일광』 2호(중앙불전교우회, 1929.9), pp.39-42 및 p.53.

항용하는 말로 평이하게 번역한 것이 없으며, 사회각계단의 교양과 지식의 정도에 맞추어 초록하여 현대적으로 해설한 것도 없다 이 불전의 민중화 현대화야말로 민중적 불교운동의 초미적 문제이다.(p.42)

불교 포교를 위해 경전을 번역, 출판해야 한다는 1910년대의 단편적인 언급이 1920년대 후반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리로 심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형식이 난해한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성전을 민중이 항상 사용하는 말로 평이하게 번역’해야 하며, ‘사회의 각 계층의 교양과 지식수준에 맞게 초록하여 현대적으로 해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형식’이란 문체와 구조 등 불경의 내적, 외적 형식을 다 포함하는 것이며, ‘초록’, ‘해설’, ‘평설’ 등은 번역의 전달 형태, 외적 형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은 단순히 번역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번역이 독서대중에게 수용되는 과정과 번역의 다양한 외적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논자가 말하는 역경의 의의는 불교 포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선 문화의 창조에 기여할 기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백성옥의 글과 함께 이 시대 번역담론을 문화운동의 범위로 확장시킨 의의가 있다.

한편 『일광』 3호에 실린 「이대문제(二大問題)」는 1931년 당시 대표적인 불교계 인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불교의 책무를 묻는 앙케이트 항목으로 불교계 유명 인사의 답변을 소개하였다.¹⁹⁾ 김법린은 ①항에 대해 ‘조선 당래의 문화에 대하여 불교의 크게 공헌할 점은 학술방면에선 조선학의 개척과 완성에 있고 실제방면에선 농촌계몽과 문맹퇴치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부연하기를 ‘조선의 신문화의 기초는 조선정신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개명할 조선학에 있고’, ‘과거 문화사상(文化史上)에 있어 일반의 주지함과 같이 조선은 불교적 조선으로써 그의 위대한 문화를 건설하였고 불교는 조선적 불교로써 그의 특이한 광

19) ①불교가 조선당래의 문화에 대하여 었더한 점에서 큰 공헌을 할 수 잇습니까. ②조선 금일의 불교도는 었더한 방면에 역량을 집주함이 가하겟습니까. 『일광』 3호(중앙불전교우회, 1931.3), pp.44-50. 답변은 김법린, 박한영(별고), 김해은, 송진우, 김영수, 한용운, 안계홍, 권상로, 송종현, 홍기문, 赤松智城, 이용조, 忽漣谷快天, 박웅일, 김두현, 江田俊雄, 서원출, 김정완, 박창두 순으로 소개되어 있다.

채를 발휘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 문화사상의 불리밀접한 관계에서 조선학의 개척과 완성에 불교가 가장 적임'이라 하였다.²⁰⁾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불교의 시대적 책무는 '조선학의 개척과 완성'에 있다고 한 것으로 이는 상기한 역경의 의의를 조선학의 개척과 완성이라는 학술적 측면에서 재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문학적 번역론의 심화_한용운 박한영

문화운동의 매개로 번역을 주장하며, 문체를 포함한 형태로 '문학적 활용' 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한 백성욱 김법린의 논의(1929) 2년 후에, 이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하여, 한용운(1879-1944)과 박한영(1870-1948)도 번역론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문학형식을 활용한 번역을 주장하였다.

앞에 소개한 「이대문제」에 대한 한용운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문화에 있어서 불교의 공헌은 큼니다. 저 석굴암을 일제로 건축, 조각, 회화 등 방면에 거의가 불교의 공헌이지요. 나는 「불교대전」을 초하다가 발견한 것이요만은 우리 향간에 돌아다니는 <룻기전> <적성의전(翟成儀傳)>이 모다 불경에서 나와 번역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데서 나온것도 모르고 잊지 안습니까. 이러케 문학방면에 있어서도 그 힘이 만습니다. 이것은 풍교상에 영향되는 것이지요. 새로 창작한다는 것은 별문제로하고 우리는 불경 가운데서 훌륭한 소설, 시, 극, 동화 등 여러가지 작품을 만드러낼 것이라 합니다. 세종때 조선글노 불경을 번역한 것이 금일 그 연구에 유일한 재료가 됨은 체언할것도 업거니와 역경사업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잇서 건축 조각 회화 등 방면에 크게 공헌한 조선불교는 이로부터 문학방면에 공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② 교육과 포교에 힘써야 될 것은 물론인데 교육시설은 어지간이 된 셈

20) 앞의 책, pp.44-45.

이니 포교에 힘쓸것이올시다. 포교사업을 발전시키는데는 역경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역경 한 가지는 포교사업과 또한 압해 말한 문학에 동시공헌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첫째로 정교분립에 힘쓸 것입니다. 그 래야 대중을 스을수있습니다.(『일광』3호, p.46)

정교분리에 대한 소신을 밝힌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량을 불경을 문학적으로 재창조하여 우리 말글로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의 가치와 효용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하였다. <토끼전>과 <적성의전>이 ‘불경에서 나와 번역된 것을’ 뒤늦게 알았음을 고백하며 놀라움을 표시하였다.²¹⁾ 역경과 문학적 형식의 활용은 한용운의 견지에서 보면 순차적 행위일 수도 있고 동시적 행위일 수도 있다. 조선의 문화에 대해 기여하는 ‘역경의 완성’은 조선어 번역에 있고, 더 나아가 문학적 형식으로 전파하여 내면화하는 문화 창조에 궁극적 목표가 있음을 말하였다. 문학적 형식으로 경전 내용을 형상화하는 것은 한국문화 창조를 위한 매우 적극적 역경행위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해의 주장은 이보다 6년 후에 쓴 「역경(譯經)의 급무(急務)」에 재차 강조되어 있다.²²⁾ 여기에서 만해는 <별주부전(토끼전)>과 <적성의전>이 불경의 번역임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²³⁾ 또 한글창제에 불교의 역할이 컸다는 점, 신라가요의 예에서 보듯 불교문학이 한국문학의 효시라는 점, 훈민정음 창제 후 시도한 불경 언해가 한글문학의 출발이라는 점도 거론하였다. 조선중엽 이후 불교가 억압받았을 때 탁발승의 <회심곡>이나 고소설의 불교적 영이담 등이 불교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거의 유일한 매개였음을 밝히고, 역경이 문학의

21) <토끼전>이 불경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지금은 일반화된 사실인데 한용운 시대에는 매우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당시 『불교』에 투고한 권상로의 글, 「토생원 별주부전기는 어데서 불어 방시된 것인가?」(운양자(雲陽子) 『불교』73호(불교사, 1930.7), pp.53~54)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또 한용운이 제기한 바, ‘불경 가운데서 훌륭한 소설, 시, 극, 동화 등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번역창작의 실체는 사실 만해가 편집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불교』에 다양한 양상으로 현실화된 바 있다.

22) 만해, 『(신)불교』3집(경남삼본산종무협회, 1937.5), pp.2-7.

23) 『별주부전』은 『별미후경(籠彌猴經)』에서, 『적성의전』은 『현우경(賢愚經)』의 「선사태자입해품(善事太子入海品)」에서 유래한 것을 밝혔다.(p.4)

형식으로 포교와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교당국자에게 대규모의 역경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같은 해에 한용운은 『불교』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²⁴⁾ 「조선불교의 개혁안」을 투고하였다.²⁵⁾ 이는 『조선불교유신론』 이후 불교의 개혁론을 재론한 글인데 이 글의 제5장, ‘경론의 번역’에서 번역론을 일부 개진하였다.

현금에 있어서 불교를 선포하라면 평이한 한글 혹은 선한호용문(鮮漢互用文)으로 번역 편찬 창작 등을 여행(勵行)하지 안이하면 안이될지니 번역이라는 것은 경전 그대로를 직역혹의역하는 것이오 편찬이라는 것은 경전혹타인의 저서에서 찬발편찬하는 것이오 창작은 물론 신의장으로 저작하는 것이다. 직역으로 말하야도 아즉 조선에서 대장경의 전부를 번역하기는 그야말로 시기상조다. 위선 그 내용이 비교적간단명료하고 인중에게 보급하기에 적당한 경전을 지극평이하게 번역하고 혹은 각경전에서 더욱이 금과옥조가 될만한 성언묘지를 활요하야 파푸레트 혹은 단행본으로 간명하게 번역하며 창작에 있어서 물론 다방면이 있것으나 주로 불교교리의 시대사조에 적응한 점을 만히 지적하고 논거하야 광대심원한 불교교리의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있어서 가추지 안이함이 있는 것을 일반에게 알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pp.7-8)

전체적으로는 번역이 불교 포교를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체, 번역방식, 전달방식의 세 측면을 제시하였다. 번역의 문체로서 ‘평이한 한글’과 ‘선한호용문’, 즉 순한글과 국한문혼용 두 가지를 들었고, 번역의 방식으로 ‘직역’과 ‘의역’ 두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그 전달방식으로 ‘번역’과 ‘편찬(編撰)’, ‘창작’의 세 분야를 들었다.

박한영은 상기한 「이대문체」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여 같은 호에 별도로 「설창한화(雪窓閑話)」를 투고하였다.²⁶⁾ 여기에서 그는 세계문학의 사례를 들어

24) 『불교』 84·85호(1931.7)부터 종간호(108호)까지 한용운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참여하였다.

25) 한용운, 『불교』88호(1931.10), pp.2-10.

26) 석전사문(石顛沙門), 『일광』 3호(중앙불전교우회, 1931.3), pp.28-29.

더 적극적으로 번역의 형식론-문학 형식의 번역-을 전개하였다.

연극 진 역량을 잇는 대장부야. 사풍사조(作風作潮)에 입각지를 천동(遷動)할야 기말중기말(技末中技末)인 문학 방면으로 말하야 보자. 차심(此心)을 정한 이상에는 취죽황화(翠竹黃華)가 묘법을 파로(披露)하며 시정 한답이 모다 불어(佛語)이다. (중략) 마명용수(馬鳴龍樹)의 일지필능력(一枝筆能力)으로 당일 오천축(五天竺)의 대승불교를 중흥하고 그의 파광(波光)이 원급(遠及)하야 동방 산하를 요잡(繞匝)하고 마궁(魔宮)에 접근한 구미학해까지를 태금진탕(迨今震蕩)하는 것을 유안자(有眼者)는 불견(不見)키 부득(不得)하다. 또 요진(姚秦) 삼장(三藏) 구마라집(鳩摩羅什)은 문하 팔철(八哲)로더부러 마하법문(摩訶法門)을 번역할 제 유래한문(由來漢文)의 문호를 별벽(別闢)하야 소위 상서고문과 제자사론 이외에 일월쟁광의 문법대가를 건조하야 지금 우내에 비음(庇蔭)이 거거(渠渠)하다. 시(是)는 그에 거자(巨者)를 약도(略道)한 것이다. 당세(唐世)에 지하야 청량(淸涼) 규봉(圭峰) 양사(兩師)의 화엄(華嚴) 원각(圓覺)에 대한 대소(大疏)를 불견(不見)하였는가. 문기팔대(文起八代)하였다는 한창려(韓昌黎)와 상승좌국(上承左國)하였다는 유하동(柳河東)이라도 여차한 홍사옹구(鴻詞雄構)에는 실색양지(失色讓地)할뿐이었다. 우리 진역(震域)에 효공(曉公)의 대수(大手)와 문창(文昌)의 가조(佳藻)에는 당대에 능가할 자 무유(無有)하였다. 소설가에 추상(抽象)할지라도 명조(明朝) 오승은(吳承恩)이란 문호는 화엄 법계품말회에 득의하야 사대기서 중 서유기를 저술하였다. 오일자(悟一子) 진사빈(陳士斌)은 도가류로 비평하였지만은 진실 내용은 호불척도(護佛斥道)로 입의(立意)한 것이다. 우리 조선 중엽에 김만중 거사는 반본환성관(返本還性觀)의 영자(影子)로써 구운몽(九雲夢)을 저술하였거날 그것을 개량윤색한 것이 남초담(南談草) 거사 지은 옥련몽(玉蓮夢)이다. 이것이 불교의 □염(染)한 소설로써 화월심구에 침취한 재자가인의 감몽을 환성한 것이다. 근대 구서 대작인 희무정(噫無情) 해당화(海棠花)와 비교하야 보면 수영수수(誰贏誰輸)를 난정(難定)하겠다. (중략) 구대(舊代)로부터 원자(喧籍)한 토간(兔肝)을 구하는 별주부타령(鼈主簿打令) 갖튼것이 실로 불교문학에서 환두장면(換頭粧面)식힌 것이다. 동

서고금을 회고하면 얼마나한 우리 불교문화의 장엄세계인가.(pp.28-29)

이 글은 전통 한문에 더 익숙한 근대불교지식인이 쓴 독특한 문체의 글이다. 불교와 문학을 별도의 영역으로 보는 근대적 사유와 다르게 박한영은 문학의 개념을 폭넓게 받아들여 문학적 표현으로 그 완성도를 높인 경론소 자체를 문학으로 인식하였다. 근대의 분과 학문적 사유와 달리 인용문에서 석전은 마명과 용수의 찬술, 구마라집의 번역,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와 규봉 종밀의 『원각경소』를 불교문학의 탁월한 성과로 보고 있다.

징관과 종밀 소의 경우 ‘홍사옹구(鴻詞雄構)’라는 표현으로 웅장한 구도와 풍부하고 호한한 표현미를 가진 논소로서 대단한 문학적 성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원효의 대가다운 문장(大手)와 최치원의 아름다운 시문(佳藻)이 같은 맥락에서 훌륭한 불교문학으로 상찬되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오승은의 <서유기>, 김만중의 <구운몽>, 남담초의 <옥련몽> 등을 훌륭한 불교문학 작품으로 소개하였다. <서유기>는 ‘화엄 법계품(法界品) 말회(末會)에 득의하여’ 지은 것이며, <구운몽>은 ‘반본환성관(返本還性觀)의 그림자’로 표현하였다. 또 조선의 <구운몽> <옥련몽>은 ‘근대 서구의 대작인 레미제라블[噫無情], 부활[海棠花]’과 비교’해도 막상막하라고 평가하였다.

인용문에는 전근대와 근대가 교차하는 이 시대에 중간 고리 역할을 했던 석전의 매우 독특한 논리가 담겨있다. 박한영은 불교가 조선의 문화에 대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방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불교문학의 창작을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역경의 본질이 대중에게 불교를 전파함에 있다고 할 때 역경의 최종 단계로 창작 문학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글이 실린 『일광』은 중앙불전교우회에서 발간한 교지인데 석전은 교육자로서 중앙불전의 재학생들에게 장차 이 방면에 헌신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불교적 내용을 담은 문학 창작은 불경 번역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것, 혹은 역경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20-30년대

불교잡지에 전개한 번역담론을 살펴보면 역경의 최종단계이자 최고 목표로 문학 형식을 활용한 불경의 대중화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IV. 번역담론의 비교와 시대성

1920-30년대 불교잡지에 번역론을 전개한 이는 박한영(1870-1948), 권상로(1879-1965), 한용운(1879-1944), 백성옥(1897-1981), 김법린(1899-1964) 등이다. 이들은 실로 이 시대를 대표할만한 불교지성으로 공존한 사이기는 하나, 서로 세대가 다르고 공부 이력이나 불교계 내의 위상과 지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 강원에서 교학을 연마하여 선암사 강맥을 이음과 동시에 불교고등강숙 숙장과 중앙학림 학장으로 후학을 양성한 박한영. 그는 전통시대의 이력을 충실히 밟고 교육 분야에서 신진 세대의 지도자 역할을 한 대중사이자 선사다.²⁷⁾ 권상로, 한용운은 같은 연배로서 박한영보다 9년 후학이다. 근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현실적 추동력을 가지고 불교기관지의 편집권을 행사했던 핵심 세대다. 백성옥, 김법린은 다시 이들보다 20년 정도 후학으로서 박한영이 교장으로 있던 중앙학림 졸업생이다. 이들은 1919년 중앙학림을 졸업하고 각각 독일과 프랑스로 유학을 다녀온 신진세대이며 근대학문의 방법론을 체득한 세대다. 이들을 각각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이에 불교와 불교 대중화를 위해 번역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대별 차이가 없다.

앞장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담론의 경향을 문체, 전달방식, 문화론의 세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번역의 문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세대간에 차이가 있다. 권상로와 한용운은 현토를 포함한 국한문혼용체의 활용을 별다른 반감 없이 드러내었

27) 백용성(1864-1940)의 경우 박한영과 같은 세대로서 불교사에서의 위상은 물론 언어감각이나 번역의 언어 표현 양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다. 권상로는 「조선글화엄경을 보고」에서 ‘선한문교용(鮮漢文交用)’ 즉 국한문혼용이나 순조선문으로 번역, 출판하는 것의 가치를 긍정하였다. 한용운 역시 「근대불교의 개혁안」에서 평이한 한글이나 ‘선한호용문(鮮漢互用文)’을 써서 번역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들보다 앞 세대인 박한영은 논설에서 문체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방대한 번역서를 일별해볼 때 국한문혼용, 현토체 등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현토나 현토에 가까운 국한문혼용체는 박한영 세대의 자연스런 언어현실이라 할 수 있는데, 후속세대인 권상로, 한용운이 말하는 국한문혼용은 실제로는 현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백성옥은 「역경의 필요는?」에서 ‘재래의 경전역출 방식’을 직접 비판하고 이를 지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순한글 번역이라 할지라도 ‘한문현토식을 한글로 써 놓은 것’에 불과한 번역은 번역에 대한 안이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권상로와 한용운이 긍정했던 국한문 혼용체도 현토 수준에 불과한다면 실질적인 언문일치가 아니며 현실언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이다.

김법린은 「민중본위적 불교운동의 제창」에서 불교성전을 민중이 항상 사용하는 말로 평이하게 번역한 것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기성세대와 달리 백성옥과 김법린은 새로운 시대의 언어감각과 문화적 감각을 반영하는 ‘완전한’ 번역, 즉 당대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는 번역을 강조하였다.

둘째, 번역의 형식,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면에서 세대에 공통점이 있다.

권상로는 ‘해석’, ‘강의’, ‘통속’, ‘의역’ 등 독자의 근기에 따른 번역의 방식을 제시했다. 김법린은 사회 각층의 교양과 지식의 정도에 맞추어 ‘초록(抄錄)’하여 현대적으로 ‘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용운은 ‘번역(직역, 의역)’, ‘편찬’, ‘창작’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번역(직역, 의역)에서부터 편찬, 강의, 해석, 통속적 활용 및 창작에 이르기까지 번역 형식과 전달 방식의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칠게 조망하면 권상로가 『불교』에 투고한 많은 글과 작품은 그가 말한 ‘통속’의 방식에 주안점을 둔 것이며, 한용운의 『불교대전』은 그가 말한 ‘번역’과 ‘편찬’, 『유심』의 시, 소설은 ‘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한영의 경우 실제의 번역물에서 번역(譯)과 역술(譯述)로 구분하였다.²⁸⁾ 박한영은 앞서 말한 대로 전통 강원의 강맥을 잇고 전문학교에서 경론을 강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문 원문을 단순히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방식을 동원하였다. 즉, 원전과 번역문을 병렬하여 제시하는 방식, 과문을 하는 방식, 원전에 현토를 달고 해설은 국한문 혼용으로 제시하는 방식 등이다. 제3세대가 대중적인 맥락에서 현실언어감각을 반영하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을 주장한 것에 비해, 제1세대는 전통 교학을 근대의 학문영역으로 계승하고 학인을 훈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언어관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상의 차이는 각각 처한 불교계 내의 역할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내재한 사교의 차이, 이력과정의 차이, 언어감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불경의 번역이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문학창작의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세대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계제 순으로 보아 문화운동론을 맨 처음 개진한 이는 백성옥이다. 그는 백성옥의 『조선글화엄경』 간행과 권상로의 논설 이후에 자신의 번역론을 개진하였는데, 이 글에서 백성옥은 경전의 번역이 문화운동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법린은 이에 더하여 조선학의 개척과 발전에 기여하는 불교와 불교학의 가치를 말하였는데, 여기에는 번역의 의의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교론적인, 당위론적인 번역담론이 이들 제3세대에서 문화적 담론으로 확장된 것이다.

더 나아가 백성옥은 번역이 ‘극적으로 예술적으로 전설적으로 문학적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문학적 번역론의 시야를 확보하였다. 한

28) 백성옥의 경우 역서에 ‘조선글’ 외에 ‘선한문역(鮮漢文譯)’, ‘선한언의(鮮漢衍義)’, ‘상역과해(詳譯科解)’ 등의 표현을 달았다.

용운과 박한영은 문학적 양식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한국문학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논의의 폭을 넓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용운은 두 편의 글(「이대문제」, 「역경의 급무」)에서 한글, 한글문학과 불교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별주부전(토기전)>과 <적성의전>이 불경의 번역임을 밝혔고, 향가, 훈민정음 창제, 불경언해, 조선후기의 회심곡, 고소설의 불교적 모티프 등을 예로 들어 우리 역사상 문학적 형식의 역경이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음을 밝혔다. 만해는 문학적 번역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논거를 확보하고 방법론을 심화한 공이 있다.²⁹⁾

박한영은 더 나아가 논거의 범위를 세계문학과 불교의 논소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마명, 용수, 원효, 최치원의 논서와 시문, <서유기>, <구운몽>, <옥련몽> 등의 소설을 훌륭한 불교문학으로 소개하였다.³⁰⁾ <서유기>는 ‘화엄 법계품(法界品) 말회(末會)에 득의하여’ 지은 것이며, <구운몽>은 ‘반본환성관(返本還性觀)’의 그림자’로 표현하였다. 또 조선의 <구운몽>, <옥련몽>은 근대 서구의 대작인 『레미제라블』, 『부활』과 비교해도 막상막하라고 평가하였다.

한용운과 박한영은 앞서 백성욱과 김법린이 제시한 문화운동론에서 특히 문학적 형식을 강조한 문학적 번역론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 논의한 번역담론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그 직접적인 이유로 백용성의 영향을 말하고 말 수도 있겠지만 그 저변에 흐르는 문화사의 흐름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1920-30년대 불교번역담론이 지니는 시대적 배경과 경향에 대한 논의다.

지금까지 검토한 번역담론은 모두 『조선글화엄경』의 간행(1927, 1928) 이후 촉발된 것으로서 1928~1931년에 집중되어 있다. 1937년 만해의 후속논설을 제

29) 한용운이 제시한 역경의 완성을 위한 문학적 방법론은 실제로 그가 편집인으로 있는 『불교』에 다채롭게 구현된 바 있다. 김태흡의 불교설화, 권상로의 창가, 조학유의 찬불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론과 실천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전개된 것이 이 시대 번역담론과 실천의 관계로 파악된다.

30) 이 시대는 문학이라는 개념이 문장, 문체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며, 탁월한 문장으로 문학적 감동을 주는 경문소까지 문학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 문학이라는 개념이 사실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들 근대불교잡지 번역론에 담긴 문학 개념은 전근대적 개념이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하면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주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1910년대 잡지를 거칠게 조망해 본 결과, 본격적인 번역론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시기는 번역에 대한 논의보다 출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시기다.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1913)은 이 시대 개혁담론의 대표적인 성과지만 포교차원에서 번역이 필요하다는 간단한 언급만 있다.³¹⁾ 같은 해에 『조선불교월보』에 수록된 박한영의 논설 두 편은 이 시기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불교 유신을 위해 전적을 근대 인쇄술로 근대적 방식으로 번역 간행할 것을 주장한 「불교유신과 전적간행」³²⁾, 이 글의 후속 논설로서 세계학문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여 옛 문헌을 인쇄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언어로 문장으로 간행할 것을 주장한 「신어신문호불채청(新語新聞胡不采聽)」³³⁾은 불교 경론을 전통 방식으로 펴내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간행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전개하였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이러한 주장이 잡지에 실린 것은 1912,3년 당시 불교 전적의 출판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가진 노장층이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전을 번역한다는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20년 초 백용성이 번역의 의지를 드러냈을 때 기성세대들의 반론이 있었다는 점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1910년대는 불교경론의 근대적 출판이라는 담론이 주를 이루었고, 1920년대 백용성의 번역 추진과 출간 이후 번역담론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보듯 단순한 당위론, 포교론에서 문화운동론으로, 문학적 번역담론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 시기 번역담론 활성화의 배경은 해외 불교계의 동향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1930년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불교도대회에서는 ‘불교문학’의 창작과 진흥이 주요한 안건으로 제시되었다. 불교청년회 활동을 하

31) 김종인(2009), p.107.

32) 영호생(映湖生) 『조선불교월보』17호(1913.6), pp.2-5. 당시 굳이 새로운 전적을 출판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불교계의 비난에 대한 반론의 글이다.

33) 영호생(映湖生) 『조선불교월보』19호(1913.8), pp.5-7.

던 도진호(都鎭鎬, 1890경-미상)가 쓴 보고서에는 1930년대 환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추진할 불교청년 사업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³⁴⁾ 그중 제1부 제3항은 일본에서 발의한 것으로 ‘각국의 불교청년들은 예술부를 설치하여 불교예술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문학부’에는 ‘창작방면’, ‘선전방면’, ‘비평방면’에서 불교문학을 진흥할 방안을 정리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교문학 잡지를 간행하고 불교잡지에 창작문학과 비평문을 발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³⁵⁾

이를 보면 당시 불교문학잡지의 창간과 불교문학의 창작이 일본,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불교계의 시의성 있는 관심사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여기에는 번역의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문학 창작과 비평, 잡지 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백성욱이 『한글불교』의 간행을 주장했던 일, 권상로가 불교잡지에 전통 한시에서부터 근대문학의 여러 양식들을 동원하여 문학작품을 게재한 사실, 박한영이 전통 한시를 다수 발표하고 ‘학생’ 작가군의 작품이나 논설에 적극적으로 비평을 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1920-30년대 불교잡지를 통한 불교문학의 활성화는 당시 여러 나라의 관심사요, 불교문화운동의 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자세한 논증과 비교연구가 필요하겠지만, 1920-30년대 불교잡지에 개진된 문학적 번역담론은 일정 부분 불교문학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견인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4) 도진호, 「범태평양회기」, 『불교』75-77호(불교사, 1930.9-11).

35) 『불교』77호의 ‘의안(議案)에 현시(現示)된 불청운동의 장래’, 중 제1부 제3항, 「각 불청은 예술부를 설치하여 불교예술의 진흥을 도(圖)할 일」 참조(p.34).

V. 맺음말

기준에 한국 불교와 번역의 관계는 연구 대상이나 시대적 흐름이 매우 제한적으로 조망되었고 단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경 번역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면서, 그 이후에 불경의 한글 번역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한국불교번역사의 한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 근대에 기독교의 성서 번역과 유포에 따른 대중화에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교계의 성과를 지적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불교잡지의 정밀한 독서를 통해 보완되거나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본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고는 백용성의 『조선글화엄경』 간행 이후 근대불교지성이 나름대로 전개한 번역담론을 불교잡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시기 불교지성은 불경 자체의 번역을 넘어서 번역 형식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논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장경 전체를 번역하는 것이 번역의 완성일 수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근대시기에 불교지성은 다양한 형식으로 경전을 우리말로 형상화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바라본 것이 확실하다. 이는 곧 한국적 번역담론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김법린, 한용운, 박한영이 주장한 문학적 번역론은 당시 불교계가 지향했던 대표적인 번역담론이며 불교문학을 활성화하자는 세계적인 추세에 일정 부분 견인된 것이다. 이러한 담론과 실제 번역물 사이에 어떤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및 단행본

- 『불교』
- 『일광』
- 『(신)불교』
- 김광식·이철교 편,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민족사, 1996.

2. 논문

-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5집, 대각사상연구원, 2002, pp.45-87.
- 김광식, 「일제하의 불교출판」, 『대각사상』 9집, 대각사상연구원, 2006, pp.9-42.
- 김기중, 「김태흡의 대중불교론과 그 전개」, 『한국선학』 26집, 한국선학회, 2010, pp.485-522.
- 김무봉, 「불경언해와 간경도감」, 『동아시아불교문화』 6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pp.3-49.
- 김상영, 「만해와 허영호의 불교성전류 편찬 간행과 그 의의」, 『만해학보』 14·15합집,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5, pp.124-155.
- 김종인, 「20세기 초 한국불교개혁론에서 불경의 한글 번역에 대한 인식」, 『종교연구』 55집, 한국종교학회, 2009, pp.95-121.
- 김종인·허우성, 「불경의 한글번역과 한국사회의 근대성」, 『동아시아불교문화』 6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pp.123-147.
- 김종진, 「1920년대 불교지에 나타난 불교유학생의 문학활동-백성욱 김태흡 이영재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42집, 한국불교연구원, 2015, pp.285-316.
- 김호귀, 「용성의 불전번역과 그 의의-금강경과 용성선사어록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17집, 전자불전연구소, 2015, pp.1-29.
- 사토 아츠시, 「근대 한국불교잡지에서의 해외 논문 번역-1910년대 초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60집, 동국사학회, 2016.6, pp.166-190.
- 송현주, 「한용운의 불교대전과 난조분유, 마에다 에운의 불교성전의 비교연구」, 『불교연

- 구』 43집, 2015, pp.243-277.
- 신규탁, 「한국불교에서 화엄경의 위상과 한글 번역-백용성과 이운허의 번역 중 이세간 품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18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pp.103-139.
 - 신규탁, 「한역 불전의 한글 번역에 나타난 경향성 고찰-간경도감 백용성 이운허 김월운 스님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6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pp.51-88.
 - 윤종갑, 「동아시아의 근대불교와 불경의 번역과 출판」, 『동아시아불교문화』 28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6.12, pp.345-372.
 - 이만식, 「불교의 문화적 번역」, 『동서비교문화저널』 19호,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2008, pp.195-224.
 - 이종수, 「조선후기 화엄학의 유행과 그 배경」, 『불교학연구』 42집, 2015, pp.59-82.
 - 임승택, 「빨리 경전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양상과 과제」, 『동아시아불교문화』 6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pp.149-187.
 - 임형석, 「박한영 『인학절본』 번역과 사상적 문맥」, 『동아시아불교문화』 15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3, pp.145-173.
 - 조명제, 「1910년대 식민지조선의 불교 근대화와 잡지 미디어」, 『종교문화비평』 30집, 종교문화비평학회, 2016, pp.86-115.
 -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역경 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5집, 대각사상연구원, 2002, pp.89-128.
 - 한보광, 「백용성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 『대각사상』 18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12, pp.55-102.

A Discourse on Translation in modern Buddhist Journals - Focusing on *Bulgyo* (*Buddhism*)

Kim, JongJin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Modern Buddhist journals, especially the magazine *Bulgyo* (*Buddhism*) published between 1920s and 1930s contains various translations covering overseas Buddhist research, scientific knowledge, poetry, novels, etc., more than the those of scriptures. These journals also present the various discourses by Buddhist intellectuals on the method of translation. This circumstance requires a reflective review on the fact that previous researchers have passively explored the modern Buddhist leading intellectuals' view of translation. Therefore, in Chapter 2, this study reviews recent research on the modern Buddhist translations and raises the need for research on translation discourses through *Bulgyo*. In Chapter 3, this study explores in detail the translation discourses appearing in *Bulgyo* between 1920s and 1930s and extracted thei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uch intellectuals representing the Buddhist world as Park Han-yeong, Kwon Sang-to, Han Yong-un, Baek Seong-uk and Kim Beop-rin, etc. developed a translation theory aimed at formal diversity and that the discussions wer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affirming the value of culture and literary translation.

The publication of *Joseongeul Hwaem-gyeong* (*Avatamsaka Sutra in Korean* 1927, 1928) by Baek Yong-seong is followed by active discussions related to the translation work. *Bulgyo* and other magazines (彙報) and journals (宗報) contain

articles on *Joseongeul Hwaecomgyeong*. Various articles, commentaries, and advertisements of Buddhism were triggered by the publication of *Joseongeul Hwaecomgyeong*, with the development of logic in depth.

Keywords

Translation, Modern Buddhism translation theory, Translation discourse, Park Han-yeong, Kwon Sang-ro, Han Yong-un, Baek Seong-uk, Kim Beop-rin

2018년 02월 15일 투고

2018년 03월 11일 심사완료

2018년 03월 16일 게재확정